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도덕적 이탈이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ral Disengagement on
Children's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a Bullying Situations*

김지미(Ji Mi Kim)¹⁾
김정민(Jung Min Kim)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oral disengagement concerning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children's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bullying situa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 group of participants comprising total 541 students of fifth, seventh, eighth, tenth and eleventh grades from schools based in Seoul and Incheon were surveyed. As far as research methods are concerned, scales fo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moral disengagement and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a bullying situation were used.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by gend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bullying. By grade,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i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bullying and moral disengagement. Second, variables affecting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bullying situations were found to be influenced by the types of role behavior respectively as well as by students' grade levels. Third, moral disengagement concerning the influence of parental

* 본 논문은 2013년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석사 졸업

²⁾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ung Min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Namgajwa 2-dong, Seodaemun-gu, Seoul 120-728, Korea
E-mail : jmkim122@mju.ac.kr

psychological control on participant role behavior was found to have a full mediating effect on bystander behavior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bullying behavior among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Keywords : 부모의 심리적 통제(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participant role behavior in bullying).

I. 서 론

또래괴롭힘이란 집단의 구성원 중 자기보다 약하거나 집단의 암묵적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개인 혹은 여러 명이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된다(Olweus, 1973).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에 의하면, 2006년도 학교폭력의 피해율은 17.8%, 가해율은 12.6%이던 것이 2011년도에 이르러 피해율은 18.8%, 가해율은 15.7%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또한 2008년 28.6%에서 2011년 41.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또래괴롭힘이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이들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또래괴롭힘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초점을 두고 있어 또래괴롭힘을 다양한 세부 집단 간의 역동으로 파악하려는 국외 연구들의 접근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Kim, 2003; Park, Son, & Song, 1998). 구체적으로, 국외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또래괴롭힘 상황을 가해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맥락 내 전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Salmivalli & Voten, 2004; Sutton & Smith, 1999). 한 연구에 의하면, 학급 구성원의 85%가 또래괴롭힘의 다양한 역할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Sutton & Smith, 1999). 또 다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를 목격한 주변인들에게도 심각한 수준의 신체화, 강박, 대인관계 민감성,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Hawker & Boulton, 2000; Rivers, Potteat, Noret & Ashurst, 2009).

최근 몇몇 국내 연구들이 또래괴롭힘의 참여자 유형을 가해집단, 가해피해 집단, 피해집단으로 분류하거나(Haynie et al., 2001; Kumpulainen & Rasanen, 2000), 가해아, 피해아, 방관자, 피해아방어자, 가해동조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노력이 이루어졌다(Baik, 2010; Seo, 2008). 그러나 이러한 참여자 유형은 고정적인 것이기 보다는 상황과 가해 경험에 따라 중복되거나 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Han, 2000; Sutton & Smith, 1999).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이 또 다른 상황에서는 가해 아동이 되는 경우는 흔히 보고된다(Hanish & Guerra, 2004; Park,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참여자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또래괴롭힘 상황에서의 역할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더불어 또래괴롭힘의 역할행동 중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방어행동은 적극적인 친사회적 특성으로, 가해행동, 피해 경험, 방관행동, 동조행동에 공통적으로 함축된 부정적인 특성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역할행동에서 방어행동과 그 외 나머지 행동

들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는 방어행동을 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역할행동의 구분을 직·간접적으로 또래괴롭힘을 주도하는 가해행동, 또래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피해경험, 또래괴롭힘을 목격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행동,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를 부추기는 동조행동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래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가족 변인, 특히 학대나 과도한 체벌과 같은 부모 양육 행동의 위험성을 제안하였다(Burk et al., 2008).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역기능적 부모의 양육행동 외에 또래괴롭힘 행동에 관여하는 부모-자녀 간의 부적응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주목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 양식으로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 또는, 자녀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등의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의 개인적, 심리적 영역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가리킨다(Barber, 1996).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 및 문제 행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brecht & Galambos, 2007). 본 연구에서는 학대 혹은 과도한 신체적 처벌과 같은 양육행동 외에 자녀에 대한 심리적 조정(manipulation)과 같은 부모의 반복된 행동 패턴인 심리적 통제가 내면화 과정을 통해 자녀의 또래관계에서 내적작동 모델이 되어 또래괴롭힘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관계

양상이 변화를 나타내므로 그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또래괴롭힘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분노나 공격성, 불안과 같은 개인의 정서적 특성의 영향을 다룬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Seo & Kim, 2004; Toblin, Schwartz, Gorman, & Abou-ezzeddine, 2005). 반면, 이들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기제, 즉, 인지적 도식이나 특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을 예측하는 인지적 변인으로 도덕적 이탈을 고려하였다. 도덕적 이탈이란 자신이 저지른 유해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자기 설득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인지적 왜곡 과정을 가리킨다(Bandura, 2002). 도덕적 추론이 타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 혹은 도움 행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Eisenberg, 1986; Gini, 2006a; Menesini et al., 2003). 그러나 도덕적 이탈은 부적응적인 도덕적 사고의 유형으로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보다 또래괴롭힘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사고를 탐색하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12년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의 조사에 따르면(Park et al., 2013), 학교폭력 중 가해 행동의 이유로 ‘장난(33.1%)’이 2011년에 이어 여전히 1순위로 나타난 것은 또래괴롭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또래 간의 놀이나 장난으로 간주하는 일이 혼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는 가해 아동이 또래괴롭힘 행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 중 ‘스스로 그것이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64.5%)’가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이 또한 도덕적 이탈이 또래괴롭힘 참여

자 역할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인지적 변인인 도덕적 이탈 또한 연령에 따라 민감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학년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도덕적 추론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모의 자율적/통제적 경향에 따라 자녀의 도덕성 발달 수준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Oh, 2002; Rice, 2009). 이들 선행연구 결과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또래괴롭힘 행동과 도덕적 이탈 간의 연관 가능성을 토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덕적 이탈이 매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도덕적 이탈이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 도덕적 이탈 및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은 각각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도덕적 이탈이 아동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덕적 이탈이 갖는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또래괴롭힘이 아동기 후반 즉,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청소년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데 근거하여(Park et al., 2013), 본 연구는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소재의 2개 초등학교 5학년생, 1개 중학교 1, 2학년생, 1개 고등학교 1, 2학년생 등 총 54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구분은 남자 240명(44.4%), 여자 301명(55.6%)이며, 학년에 따른 구분은 초등학교 5학년생 158명(29.2%), 중학교 1, 2학년생 204명(37.8%), 고등학교 1, 2학년생 179명(33.1%)이었다.

2. 연구도구

1)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와 Österman(1996b)가 고안한 참여자 역할질문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 PRQ)를 Baik(2010)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해행동(예 : 나는 다른 아이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은 적이 있다), 피해경험(예 : 반 아이들이 나를 괜히 툭툭 치거나 나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다), 방관행동(예 :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기만 한다), 동조행동(예 : 반 친구들이 한 아이를 괴롭힐 때 옆에서 부추긴다) 등 4개의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총 26문항으로,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가해행동 .74, 피해경험 .76, 방관행동 .90,

동조행동 .81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 PCS-YSR)를 Jeon(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표현제한, 감정불인정, 비난, 죄책감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 등 6개의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총 16문항으로(예 : 우리 아버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내 말을 막고 아버지 이야기부터 하시는 편이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차갑게 대하신다), Likert 형식의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8로 확인되었다.

3) 도덕적 이탈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도덕적 이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와 Pastorelli(1996a)가 고안한 도덕적 이탈 척도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Scale : MDS)를 Seo와 Kim(2006)이 번안한 후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이 평소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정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덕적 정당화, 완곡한 명명, 유리한 비교, 결과 무시 혹은 왜곡, 책임감 대체, 책임감 분산, 피해자의 비인간화, 비난에 대한 귀인 등 8개의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 물건을 훔친 사람보다 부주의해서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 비굴하고 추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 각 문항은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5로 확인되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에 앞서 2012년 8월 20일과 21일에 경기도와 충남에 소재한 초, 중, 고교생 총 27명을 대상으로 문항 수정 작업을 거친 질문지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문항의 이해와 답변의 원활함을 확인하고, 예비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추가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서울, 인천 및 경기도의 초등학교 5학년생, 중학교 1, 2학년생, 고등학교 1, 2학년생 총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배부된 질문지 중 총 831부가 회수되었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 평가를 위해 편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을 제외하고, 응답 누락 및 불성실하게 기입된 질문지를 추가 제외한 총 541부를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t 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 도덕적 이탈 및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의 차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

적 통제, 도덕적 이탈 및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 전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해행동($t = 5.02, p < .001$), 피해경험($t = 3.33, p < .01$), 방관행동($t = 2.26, p < .05$), 동조행동($t = 3.21, p < .0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아동과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 도덕적 이탈 및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F = 8.18, p < .001$), 도덕적 이탈($F = 30.98, p < .001$),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의 하위 유형 중 가해행동($F = 16.27, p < .001$)과 방관행동($F = 10.24,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이탈의 경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의 경우, 가해행동과 방관행동은 초등학생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도덕적 이탈이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도덕적 이탈이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후,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는 .93~1.0으로 .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은 1.00~1.07로 10 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 i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moral disengagement, and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a bullying situation by children's gender

Variables	Male(N=240)	Female(N=301)	t	
	M(SD)	M(S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47.14(9.19)	47.47(9.48)	-.41	
Moral disengagement	62.25(15.11)	61.26(12.10)	.83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bullying	Bully behavior	14.03(4.82)	12.02(4.39)	5.02***
	Experienced of victim	11.03(4.77)	9.78(3.76)	3.33**
	Bystander behavior	12.20(5.10)	11.27(4.48)	2.26*
	Bully followers behavior	8.73(3.70)	3.70(2.43)	3.2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Difference i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moral disengagement, and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a bullying situation by children's grade

		Grade	n	M	SD	F	Schéff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Elementary	158	45.27	8.64	8.18***	a
		Middle school	204	47.17	9.22		ab
		High school	179	49.32	9.70		b
Moral disengagement		Elementary	158	55.77	13.10	30.98***	a
		Middle school	204	61.83	13.54		b
		High school	179	66.78	11.67		c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bullying	Bully behavior	Elementary	158	11.28	3.95	16.27***	a
		Middle school	204	13.13	4.56		b
		High school	179	14.10	5.06		b
	Experienced of victim	Elementary	158	9.98	3.77	1.20	a
		Middle school	204	10.67	4.65		a
		High school	179	13.27	4.25		a
	Bystander behavior	Elementary	158	10.25	4.50	10.24***	a
		Middle school	204	12.27	4.48		b
		High school	179	12.26	5.12		b
Bully followers behavior	Elementary	158	8.12	3.02	.16	a	
	Middle school	204	8.27	3.02		a	
	High school	179	8.30	3.25		a	

*** $p < .001$.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도덕적 이탈이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결과,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 중 가해행동에 대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beta = .40, p < .001$)가 16%의 설명력을,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beta = .41, p < .001$)가 1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방관행동에 대해서는 도덕적 이탈($\beta = .32, p < .001$)이 1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도덕적 이탈이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결과,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 중 가해행동에 대해 도덕적 이탈($\beta = .29, p < .001$)이 8%의 설명력을, 방관행동에 대해서는 도덕적 이탈($\beta = .35, p < .001$)이 1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동조행동에 대해서는 도덕적 이탈($\beta = .40, p < .01$)이 전체 변량의 19%를 설명하였으며, 이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beta = .14, p < .05$)가

<Table 3> The relative influence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ral disengagement on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a bullying situation

Grade	Dependant Variable	Independant Variable	B	β	R ²	ΔR^2	F
Elementary school	Bully behavio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184	.40***	.16		30.241***
	Experienced of victim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180	.41***	.17		31.729***
	Bystander Behavior	Moral disengagement	.109	.32***	.10		17.281***
Middle school	Bully behavior	Moral disengagement	.098	.29***	.08		18.583***
	Bystander Behavior	Moral disengagement	.117	.35***	.13		28.799***
	Bully-followers behavior	Moral disengagement	.088	.40**	.19		46.17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046	.14*	.21	.019	25.893***
High school	Bully behavior	Moral disengagement	.164	.38***	.14		29.522***
	Experienced of victim	Moral disengagement	.088	.24**	.06		11.031**
	Bystander behavior	Moral disengagement	.163	.37***	.14		28.425***
	Bully-followers behavior	Moral disengagement	.046	.17*	.03		5.091*

* $p < .05$. ** $p < .01$. *** $p < .001$.

2%를 추가하여 동조행동에 대한 총 설명력은 21%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도덕적 이탈이 고등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결과,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 중 가해행동에 대해 도덕적 이탈($\beta = .38, p < .001$)이 14%의 설명력을,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도덕적 이탈($\beta = .24, p < .01$)이 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방관행동에 대해서는 도덕적 이탈($\beta = .37, p < .001$)이 14%의 설명력을, 동조행

동에 대해서는 도덕적 이탈($\beta = .17, p < .05$)이 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3.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덕적 이탈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세 가지 단계의 접근모델에 근거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에 의하면,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 후, 그 효과가 줄어들어야 한다. 각 회귀식의 공차한계는 .90~.93으로 .1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 값은 1.07~1.11로 10이하로 나타나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도덕적 이탈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방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9, p < .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방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8, p < .05$). 또한 매개변인인 도덕적 이탈이 방관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29, p < .001$), 이와 동시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방관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졌으므로($\beta = .10$), 도덕적 이탈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방관행동을 완전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

학생의 도덕적 이탈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6, p < .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9, p < .01$). 또한 매개변인인 도덕적 이탈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26, p < .001$), 이와 동시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졌으므로($\beta = .12$) 도덕적 이탈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가해행동을 완전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고등학생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학생의 도덕적 이탈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매개변인인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31, p < .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종속변인인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0, p < .001$). 또한 매개변인인 도덕적 이탈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39, p < .001$), 이와 동시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졌으므로($\beta = -.04$), 도덕적 이탈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고등학생의 가해행동을 완전매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Mediating effect of moral disengagement concerning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a bullying situation (elementary school)

Step	Variable	β	R ²	F
1. Independent → Mediato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29***	.08	14.305***
2.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ully behavior	.40***	.16	30.241***
3.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ully behavior	.37***	.18	16.438***
Mediator → Dependent	Moral disengagement → Bully behavior	.12		
Step	Variable	β	R ²	F
1. Independent → Mediato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29***	.08	14.305***
2.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Experienced of victim	.41***	.17	31.729***
3.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Experienced of victim	.40***	.17	15.950***
Mediator → Dependent	Moral disengagement → Experienced of victim	.04		
Step	Variable	β	R ²	F
1. Independent → Mediato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29***	.08	14.305***
2.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ystander behavior	.18*	.03	5.333*
3.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ystander behavior	.10	.11	9.445***
Mediator → Dependent	Moral disengagement → Bystander behavior	.29***		
Step	Variable	β	R ²	F
1. Independent → Mediato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290***	.084	14.305***
2.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ully-followers behavior	.137	.019	2.985
3.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ully-followers behavior	-.074	.008	.637
Mediator → Dependent	Moral disengagement → Bully-followers behavior	.077		

* $p < .05$. *** $p < .0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moral disengagement concerning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a bullying situation (middle school)

Step	Variable	β	R^2	F
1. Independent → Mediato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26***	.07	14.297***
2.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ully behavior	.19**	.04	7.383**
3.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ully behavior	.12	.10	10.913***
Mediator → Dependent	Moral disengagement → Bully behavior	.26***		
Step	Variable	β	R^2	F
1. Independent → Mediato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26***	.07	14.297***
2.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Experienced of victim	.04	.02	3.833
3.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experience of victim	.14	.02	1.951
Mediator → Dependent	Moral disengagement → experience of victim	-.02		
Step	Variable	β	R^2	F
1. Independent → Mediato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26***	.07	14.297***
2.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ystander behavior	.14	.02	3.811
3.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ystander behavior	.05	.13	14.617***
Mediator → Dependent	Moral disengagement → Bystander behavior	.34***		
Step	Variable	β	R^2	F
1. Independent → Mediato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26***	.07	14.297***
2.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ully-followers behavior	.24***	.06	12.726
3.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ully-followers behavior	.14	.02	2.473
Mediator → Dependent	Moral disengagement → Bully-followers behavior	.05		

** $p < .01$. *** $p < .001$.

<Table 6> Mediating effect of moral disengagement concerning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participant role behavior in a bullying situation (high school)

Step	Variable	β	R ²	F
1. Independent → Mediato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31***	.10	18.994***
2.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ully behavior	.40***	.16	30.241***
3.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ully behavior	-.04	.14	14.834***
Mediator → Dependent	Moral disengagement → Bully behavior	.39***		
Step	Variable	β	R ²	F
1. Independent → Mediato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31***	.10	18.994***
2.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experience of victim	.09	.01	1.513
3.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experience of victim	.02	.06	5.515**
Mediator → Dependent	Moral disengagement → experienced of victim	.24**		
Step	Variable	β	R ²	F
1. Independent → Mediato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31***	.10	18.994***
2.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ystander behavior	.02	.00	.047
3.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ystander behavior	-.11	.15	15.449***
Mediator → Dependent	Moral disengagement → Bystander behavior	.41***		
Step	Variable	β	R ²	F
1. Independent → Mediato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31***	.10	18.994***
2.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ully-followers behavior	.11	.01	2.270
3. Independent → Depende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Bully-followers behavior	.07	.03	2.910
Mediator → Dependent	Moral disengagement → Bully-followers behavior	.1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도덕적 이탈이 아동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 중 가해행동, 피해경험, 방관행동, 동조행동은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은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또래괴롭힘 선행연구들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된 것과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Song, Song, Baik, & Lee, 2009).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적극적 혹은 소극적 가해행동에 관여하는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또래괴롭힘의 피해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한편, 아동의 학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 도덕적 이탈, 그리고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 중 가해행동, 방관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연령이 어린 자녀의 경우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부모가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을 파악하기 어려운 데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어린 자녀는 부모의 간섭과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통제에 민감해지며 반발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Lee, 2011).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 이탈 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덕적 판단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

은데(Bandura et al., 1996a; Kwak, 1998; Nucci, 2008a), 도덕적 이탈이 인지적 추론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기에 도덕적 기준에 반하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증가하는 것과도 (Nam & Kim, 2010) 부합한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추후 축적된 연구가 있어야 상세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 방관행동은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급증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Sim, 2000). 특히 방관행동의 경우 또래집단의 평가와 영향에 민감해지는 청소년기에 개인에 대한 집단행동에 맞서는 적극적인 도움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도움행동의 결과로 불이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학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초등학생의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나타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도덕적 이탈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인 것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부적응적인 심리적 통제에 취약함을 가리키며, 지속적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공격성 증가와 사회적 기술의 부족을 야기한다는 선행연구 결과(Finkenauer, Engels, & Baumeister, 2005; Jeon, 2007)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 가해아동이 가해경험에 따라 피해아동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보고(Han, 2000)와도 무관하지 않다. 반면,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은 도덕적 이탈로 부모의 특정 양육태도보다 자신의 행동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의 또래괴롭힘 치료 및 예방 교육을 위해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또래괴롭힘 참여자들의 도덕적 상황에 대한 인지적 패턴을 변화시키는 인지행동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방관행동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 모두 도덕적 이탈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 왜곡에 의한 도덕적 이탈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Bandura et al., 1996a)과 관련이 있다. 특히 가해행동으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과소평가, 가해행동의 제재 혹은 피해자 지지에 대한 책임 회피 및 정당화, 상황에 관여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등에 대한 판단이 방관행동을 부추겼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Bandura et al., 1996a; Gini, 2006a; Menesini et al., 2003; Paciello, Fida, Tramontano, Lupinetti, & Caprara, 2008).

한편, 초등학생의 도덕적 이탈은 동조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행동에 대한 동조 여부는 다양한 상황적 단서 및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 예측, 상반되는 관점 등을 모두 고려한 도덕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dge, Bates, & Pettit, 1990).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 또래괴롭힘과 같이 복잡한 갈등 사건에서의 동조행동은 일정 수준의 인지 기술을 요하는 도덕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집단 압력과 같은 직접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도덕적 이탈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 방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적 이탈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부분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방관행동은 예외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도덕적 이탈의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타인을 위한 도움행동을 수행할 경향이 높는데(Seo, 2006; Sutton & Smith, 1999), 또래괴롭힘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제공하지 않는 방관행동은 단순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로 인한 아동 자신의 왜곡된 도덕적 정당화가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결과가 뒷받침 되어야 좀 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경우, 도덕적 이탈이 대부분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은 매우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가해행동이 예외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도덕적 이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흥미롭다. 이는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뒷받침하는 도덕적 사고 및 신념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결과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각기 살펴보지 않았으나, 발달 단계 또는 성별에 따라 부 또는 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나, 문항의 내용상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위험이 높으므로 행동 관찰 및 또래 평정과 같은 연구 도구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References

- Albrecht, A. K., & Galambos, N. L. (2007).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aggressive behaviors and perception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and *Social Psychology*, 72, 408-419.
- Baik, J. H. (2010). Understanding peer victimization in boys and girls :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al, social characteristics and bullying participant ro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Bandura, A. (2002). Growing primacy of human agency in adaptation and change in the electronic era. *European Psychologist*, 7, 2-16.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a). Mechanism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364-374.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urk, L. R., Park, J., Armstrong, J. M., Klein, M. H., Goldsmith, H., Zahn-Waxler, C., et al. (2008). Identification of early child and family risk factors for aggressive victim status in first grad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513-526.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 1678-1683.
-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 Erlbaum.
- Finkenauer, C., Engels, R. C. M. E., & Baumeister, R. F. (2005). Parenting behaviour and adolescent behavioural and emotional problems : The role of self-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 58-69.
- Gini, G. (2006a). Social cognition and moral cognition in bullying : What's wrong? *Aggressive Behavior*, 32, 528-539.
- Han, J. S. (2000). Study on the Violence around Schools : Influence of Delinquent Pe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Hanish, L. D., & Guerra, N. G. (2004). Aggressive victims, passive victims, and bullies : Developmental continuity or developmental change? *Merrill- Palmer Quarterly*, 50, 17-38.
- Hawker, D. S. J., & Boulton, M. J. (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 sectio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4), 441-455.
- Haynie, D. L., Nansel, T., Eitel, P., Crump, A. D., Saylor, K., Yu, K. et al. (2001).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 Distinct groups of at-risk youth.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29-49.
- Jeon, S. Y. (2007).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 Mediatl

- effects of emotional autonom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6), 101-111.
- Kim, H. S. (2003). The influence of religion, parenting behavior and self-esteem on forg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umpulainen, K., & Rasanen, E. (2000). Children involved in bullying at elementary schoolage : Their psychiatric symptoms and deviance in adolescence, an epidemiological sample. *Child Abuse and Neglect*, 24(12), 1567-1577.
- Kwak, K. J. (1998). Self-efficacy and moral justification (1) : The developmental patter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11(1), 9.
- Lee, J. R. (2011). Construction of the social knowledge and adolescents' moral development. *Korean Education Association of Moral and Ethics*, 33(1), 1-30.
- Menesini, E., Sanchez, V., Fonzi, A., Ortega, R., Costabile, A., & Feudo, G. L. (2003). Moral emotions and bullying :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bullies, victims and outsiders. *Aggressive Behavior*, 29, 515-530.
- Nam, Y. O., & Kim, J. N. (2010). A study on psycho social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2), 123-141.
- Nucci, L. P. (2008a), "Social cognitive domain theory and moral education", In L. P. Nucci & D. Narvaez(Ed.),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 (pp. 291-309), New York; London : Routledge.
- Oh, G. R. (2002).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mor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by the parents' rearing behaviors and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Korea.
- Olweus, D. (1973). Personality and aggression. In J. F. Cole & D. D. Jenses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2*.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Paciello, M., Fida, R., Tramontano, C., Lupinetti, C., & Caprara, G. V. (2008).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 441-455.
- Park, K. S., Son, H. G., & Song, K. M. (1998). *Research on bullying phenomenon in Korea*. Seoul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Park, O. S., Lee, Y. M., You, H. W., Kim, J. H., Choi, H. Y., Kim, S. H. et al., (2013). *2012 National research of school violence*. Seoul :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 Rice, F. P. (2009).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12th edition. (joint translation by Jung, Y., Shin, M., & Lee, S.). Seoul : Sigma Press. (original publication, 2008).
- Rivers, I., Poterat, V. P., Noret, N., & Ashurst, N. (2009). Observing bullying at school : The mental health implications of witness statu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4, 211-223.
-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28(3), 246-258.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 Österman, K. (1996b). Bullying as a group process :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 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 1-15.
- Seo, M. J. (2006). An exploration on mitigative factors of bullying : Focused on analysis by types of outsi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Seo, M. J. (2008). Participation in bullying : Bystanders' characteristics and role behaviors.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29*(5), 79-95.
- Seo, M. J., & Kim, K. Y. (2004).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ho are bullies and/or victims.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25*(2), 93-108.
- Seo, M. J., & Kim, K. Y. (2006). Analysis of variables for classifying types of outsiders in bullying situations.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27*(6), 35-51.
- Sim, G. Y. (2000). A study of violence and related changing facto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Song, K. H., Song, S. H., Baik, J. H., & Lee, S. Y. (2009). Understanding peer victimization in boys and girls : Adolescents' emotional,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2*(2), 1-22.
- Sutton, J., & Smith, P. K. (1999). Bullying as a group process : An adaptation of the participant role approach. *Aggressive Behavior, 26*, 1-9.
-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2011). *2011 National research of school violence*. Seoul :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 Toblin, R. L., Schwartz, D., Gorman, A. H., & Abou-ezzeddine, T. (2005). Social-cognitive and behavioral attributes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3), 329-346.

2013년 8월 22일 투고, 2013년 12월 4일 수정
2013년 12월 17일 채택